



## ■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16일(月) : 주간회의 / 10월 20일(金) : 새벽강 북 토크

## ■ 연구원 소식

###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MOU체결

- 10월 12일(목)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사장 임학규)의 강영식 사무총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가 연구원이 진행중인 사업과 공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 전북의병사 실무자 회의

- 10월 12일에 우리 연구원이 진행하는 "전북의병사 사업"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고 의문점 및 보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8차 운영위원회 실시

- 날짜 : 2017.10.13(金)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의실
- 안건 : 48차 문화강좌 관련의 건
- 내용 : 연구원 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48차 문화강좌 진행과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최종 승인이 있었으며, 전체 일정 중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 박남준 시인 북 콘서트 안내 (10월 20일(金) 19시 / 선착순 30명 / 참가비 2만원)

작년 봄 42차 문화강좌를 진행해 주셨던 박남준 시인이 오랜 벗들, 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묶어 **“박남준의 악양편지”** 라는 제목의 산문집과 시선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박남준 시인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 강은자 회원이 운영하는 **“새벽강”**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남준 시인과 함께 저녁을 나누며 시인이 부르는 가을날의 노래도 나눌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문제로 **30명만 선착순 입장**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구원 사무국(286-3005)이나 사무국장, 행정실장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일 시 : 10월 20일(金) 19시~22시 / 참가자격 : 회원 및 동반인 -
- 장 소 : 전주 새벽강 / 참가비 : 1인당 2만원(식·음료 제공) -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디아스포라 강좌 안내”

- 주 제 :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와 한반도 / 강 사 : 이규수(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307호 / 시 간 : 2017년 10월 19일(목) 16시~18시
- : 디아스포라 강좌는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생은 제한이 없으므로 관심 있으신 회원께서는 오셔서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자소개

두보(杜甫, 712-770).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렸다.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뛰어난 문장력과 사회상을 반영한 두보의 시는 후세에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리기도 했다. 소년 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해 각지를 방랑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이백·고적(高適) 등과 교류(交遊)하였다. 그의 시는 사회 부정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성의가 잘 나타나 있다.

### ■ 작 품

酒中八仙歌(部分)(주중팔선가(부분))	술자리 가운데 여덟 신선의 노래(부분)
李白一斗詩百篇(이백일두시백편)	이백은 술 한말에 시가 백 수 나오고
長安市上酒家眠(장안시상주가면)	장안의 저자 거리 술집에서 잠들어,
天子呼來不上船(천자호래불상선)	천자가 불러 오라해도 배에는 오르지 않고
自稱臣是酒中仙(자칭신시주중선)	스스로 칭하기를, “신은 술 가운데 신선이로다.”

### ■ 감 상

이백은 호방한 낙천주의자였으며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 또한 도교적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이백을 낭만주의 시인으로 여기는데 그의 시가 격률과 수식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이라는 것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 거침없이 시를 써내려 갔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작품 중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율시는 80여수밖에 되지 않았고 형식에 자유로운 고체시, 가행, 악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백은 술을 좋아하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

- 그리스 메테오라, 터키의 공격을 막아낸 수도원 -



아테네 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리오시온 정류장에서 트리카라 행 버스를 타면 4시간 30분 걸려 트리카라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40여분 가면 칼람바카에 닿는다. 칼람바카로 들어서면 순간 범상치 않은 풍광에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북쪽으로 거대한 바위산이 병풍처럼 시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칼람바카에서 숙소를 정하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 메테오라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버스를 놓쳐버렸다. 다음 버스는 3-4시간 후에나 있다는 말을 듣고 걷기로 작정하였다. 몇 시간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메테오라에 대한 관심으로 들떠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걸음을 옮겼다. 시내 어귀를 벗어나니 이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이 펼쳐진다.

분명 시내에서 볼 때는 그냥 바위산이었는데 산허리를 돌아가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였다. 입구에서 처음 만나는 산 하나는 어디서 본 듯하여, 가다 말고 길가의 산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만져보았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단단한 암석인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부스러지는 것이 꼭 진안 마이산과 흡사하다. 아마 이곳도 바다가 융기(隆起)하여 산이 된 게 아닌가 생각 되었다. 마이산 같은 봉우리가 양쪽으로 25개가 솟아 있는 신비한 골짜기로 들어서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경치가 전개된다. 물론 007시리즈(Your eyes only?) 영화를 촬영한 바 있긴 하다.

높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 때문에 10세기 경 부터 수도사들의 은거지(隱居地)가 되었다. '솟을 바위' 또는 '공중에 뜬'이라는 뜻을 가진 메테오라는 그 의미에 맞게 바위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다. 과거에는 수도원으로 올라가려면, 사람이든 물품이든 그물망태로 위에서 도르래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이렇듯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높은 곳에 수도원을 만든 이유는 터키 등 외세의 침략에서 수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골짜기로 깊이 들어 갈수록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아마도 이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신과의 교류를 위한 은둔 수도사들의 영적인 무언가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서려 있기 때문이라 생각 되었다. 그래서인지 거의 하루 종일 걸었지만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로 충만하였다.



##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 최나래(한고연 회원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요즘, 모든 작물들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가을은 폐사지 답사를 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해가 넘어가는 저녁 무렵 폐사지는 그 분위기가 남다르다. 얼마 전 주말, 조선시대를 함께 전공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회암사지를 다녀왔다.

양주 회암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이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고 불교를 배척한 조선이었지만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지원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회암사는 존재하지 않고 그 터만 남아 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현재의 회암사가 있던 터지만 회암사지의 드넓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발길을 돌리기 쉽다.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전경 >

보통 조선시대 회암사라고 하면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이나 드라마 「여인천하」에 나오는 명종대 문정왕후와 보우의 관계를 생각하기 쉽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시기는 회암사의 중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사찰이 불태워져서 현재의 상태로 내려오고 있다. 회암사의 폐찰 원인으로는 임진왜란과 유생의 방화 두 가지를 꼽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생의 방화에 방점을 두고 싶다. 문정왕후와 보우에 대한 반감은 이 회암사를 불태울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학교 다닐 때 답사나 다른 이유로 여러 번 회암사를 찾았지만 이번에 다시 찾은 이유는 그 이전 시기, 고려 말 조선 초기의 회암사를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 문정왕후와 보우 이전에 회암사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넘겨주고 머물렀던 사찰이며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는 왕사 무학이 주지로 있었던 사찰이었다. 왕실과 밀접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국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올리는 재(齋) 가운데 마지막 7재(七齋)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찰이기도 했다.



<회암사지 부도탑 원경 >



<회암사지 부도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

회암사지에 가면 현재 남아 있는 드넓은 터와 함께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답사를 중단하면 회암사 답사의 절반만 하게 되는 셈이 된다. 앞서 설명한대로 회암사지 위의 현재의 회암사에 가면 회암사와 관련된 이른바 3대 화상의 부도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둘러보아야 회암사를 제대로 답사했다고 할 수 있다.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  
(보물 제388호)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  
(보물 제389호)

3대 화상은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인물로 지공화상과 그의 제자 나옹화상, 그리고 무학 대사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무학은 조선 건국과 관련하여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고, 나옹은 무학의 스승으로 고려 말 태고 보우와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승려였다. 나옹의 스승인 지공은 인도인으로 중국을 거쳐 고려로 와 불법을 전수하고 대도로 돌아갔는데, 나옹이 대도에 갔을 때 지공을 모시고 있다가 지공으로부터 지금의 회암사 자리에 크게 불사를 일으키면 불법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와서 회암사를 중창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회암사가 중창된 다음에는 중국에서 지공이 입적하자 그 유골을 가져와 회암사에 부도를 만들게 되었다.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9호)



<나옹선사 부도 및 석등>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

회암사에 얽힌 지공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으면 14세기의 국제화된 몽골제국과 고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얼마 전 작가 한강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면서 '북쪽에 초자연적인 존재를 둔 하나의 섬'이라는 표현을 했다. 인천공항에서 세계로 가는 비행기가 연일 뜨고 전 세계의 소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나라 지도에서 북쪽은 언젠가부터 비어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몽골제국의 도로망을 통해 고려로 들어온 지공의 이야기나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들어갈 때의 긴장과 설렘을 기술한 박지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와 닿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회암사의 빈터를 보고 있노라니, 더욱 그렇다.



## ■ 도농상생

###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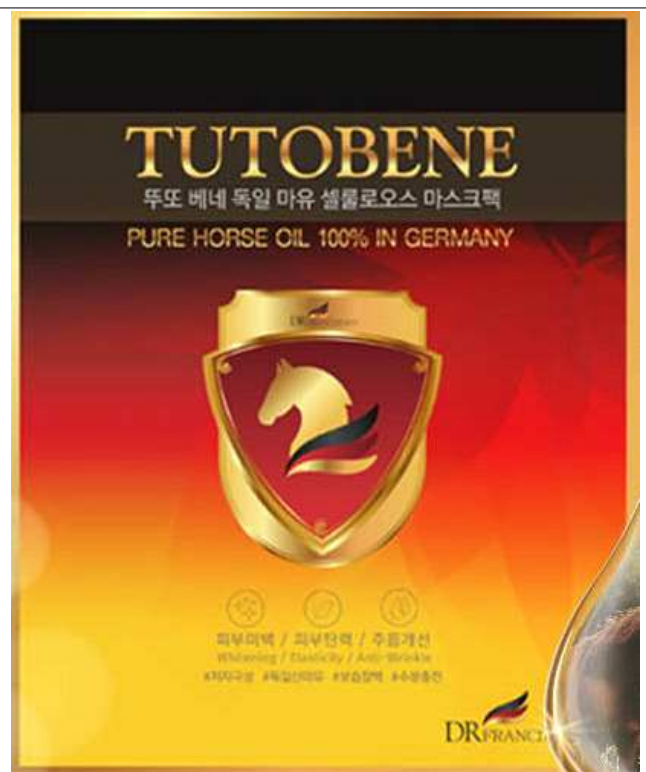
#### ◎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 시 증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30g \* 5매 >

- ◇ 시 증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 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